

청산하지 못한 역사 1·2·3

반민족문제연구소 지음 청년사 각권 6천원

교육자, 시인들이 우리 현대사의 정수리에 서서 분단과 예측 그리고 독재의 역사를 이끌어 왔던 것이다. 그러므로 본서를 이를 석자만 볼 수 있는 인사들의 지남이 단순한 호기심의 수준에서 읽어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. 왜냐하면 이처럼 청산도 못한 역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화와 민족 통일의 여정에 어떠한 커다란

림들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. 이처럼 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과거형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. 한국 민주화 꽃을 피우려 애쓰고 수많은 인명을 살렸던 '12·12 쿠데타'의 주

발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이다.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진행형이

사는 청산의 대상이다. 청산은 썸의 끝맺음을 뜻한다. 청산하지 못했음은 썸을 아직 끝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.

그러나 정산을 하는 주체로서 역사임을 알아야 한다. 즉 역사는 오염된 부분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그 자정 능력은 늘 새로운 역사

헌생을 추모하며

철거민에 대한 폭력철거 등
 그것이다.
 대학생도 여기서 예외는
 아니다. 교육시장개방, 입학학
 서 시작되는 취업전쟁은 대
 의 낭만을 먼 남의 이야기
 만든다. 어쩌면 고등학교에

대
는
지
위
상
행

일시전쟁을 견디지 못한 학
이 자살하듯이, 대학생이 취
전쟁을 견디지 못해 자살할
도 모른다.
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
게는 주변의 현실을 당장의

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구
적 문제로 바라보고, 그 잘못
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
이수병 열사의 삶의 자세가
요한 것 같다.
“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

박 정 우
(정의·4)

Lo

Figure 1



14

삼성생명 국제사업부 오종섭

이웃나라

이웃사랑

SUNG

삼선생명
묘유유

SUNG

삼선생명
묘유유

삼선생명
묘유유